

<신년사>

새해의 희망이 겨울의 복판에서 시작되듯이

韓國石油化學工業協會
會長 成 在 甲

2002년 壬午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인사를 할 때마다 '지난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희망을 말하지만, 몇 년째 힘든 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 종사자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업계가 과거 어느 해 보다도 多事多難 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해로 기억됩니다.

우선 외적으로는 2000년도 하반기에 대거 완공된 중동 설비와 대만의 Formosa 설비가 가동되면서 주요 제품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작년 6월 싱가포르의 ExxonMobil 설비 가동으로 하락세는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2001년 들어 하강세를 나타내던 미국 경제가 9·11 테러로 급속히 냉각되면서 세계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에 빨간불이 켜졌고,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세계경기의 회복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경기도 하반기부터는 반등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기관들의 전망이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제품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여기에 일부 기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노사문제, 공단의 인근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아직 결실이 도출되지 못한 구조조정 논의 등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難題들이 2002년의 과제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회원사 여러분,

세계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경쟁력 강화와 합리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xonMobil, BPAmoco, ChevronPhillip, Dow(UCC), Basell 등은 이미 합병을 통해 초대형기업으로 변신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중동과 아시아에서 현지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력확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더디다고 평가되던 일본도 대형화의 물결에 합류하여, 폴리프로필렌(PP)사업의 경우 '94년 14개사 체제에서 금년에는 4개사로 집약될 만큼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생존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Chemical Major들의 과감한 변신은 세계 석유화학시장에서 '중동과 중국'이라는 양대 산맥의 浮上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발빠른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석유화학업계도 석유화학 경기싸이클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를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협회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난 한해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협회의 기능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협회의 조사분석 업무를 보다 깊이 있고 산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회지와 Special Report를 통하여 산업 정보와 주요 이슈의 분석자료를 회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깊이와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보다 많은 제품에 대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2002년에는 아시아석유화학회의(APIIC)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아시아 동종업계에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중국의 무역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중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통해 중국업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석유화학업계의 환경·안전 개선노력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빈번한 공장사고로 석유화학산업의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산업의 자율적인 환경·안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는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지역주민과 대중에게 잘 전달하고 상호 대화하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은 물론 협회와 업계가 기업의 환경·안전 개선노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개별 회원사에게 꼭 필요한 협회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PS반덤핑 문제,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문제, 납사유분의 관세환급 문제, 연료유에 대한 특소세 과세문제, 여수산업단지의 이주대책 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회가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미결의 과제와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대변자로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서 업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새해의 희망이 시린 겨울의 북판에서 시작되듯이, 기쁨은 언제나 風雪과 苦難의 땅에서 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냉혹한 환경과 풀기 어려운 난제들로 지금 우리 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지만, 우리 업계가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넓은 안목과 협조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이름부터 생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석유화학산업이 인류의 의식주와 미래 첨단산업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時流가 인터넷 정보산업과 첨단 기술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산업의 뿌리이자 첨단산업의 산파인 석유화학산업을 한국에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 종사자들의 보다 많은 지혜와 묵묵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희망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기며 2002년 한해도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